2008 새해설계 ⑧ (사)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장 송장희

포천의 옛소리 창작무대 6월20일 마련할 계획

경기도무형문화재 2종목 지정된 도시의 자긍심 가져야

"포천의 옛소리를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소리 우리의 소리' 공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얼과 정신이 담긴 포천의 소리를 무대에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포천시민들과 소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사)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 송장희(52·**사진**) 지부장은 지난해까지는 개인적으로 소리공부에 전념했으며 올해부터는 포천시민들에게 우수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공연무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지부장은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1호 경기소리(보유자 임정란) 이수자로 2007년12월20일 지정을 받았다. 1989년부터 소리공부에 나선 지 20년만이다. 안비취 선생님 문하에서 공부를 시작해 전숙희-임정란 선생님으로부터 사사받은 송 지부장은 15명으로 송장희예술단을 지난해 창단했다. 어렵게 소리공부를 시작해 어려운 과정을 하나하나 극복하여 이수자로 지정되었으며 이제 본격적인 소리공연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지부장 올해 정기공연을 연극, 무용, 경기민요가 하나로 연출될 수 있도록 무대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민요의 대표곡도 선보일 계획이다.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과 강원도 아리랑, 태평가는 물론 회심곡, 금강산타령, 청춘가도 공연할 계획이다.

현재 1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는 오는 6월20일 포천에서는 최초로 창작무대를 포천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포천의 소리가 있다. 예를 들면 포천메나리와 풀피리다. 창작곡 한탄강 아리랑도 있다. 이번 공연은 포천의 옛소리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에서 7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공연은 시민들도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체험코너도 마련할 계획이다.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포천의 옛소리를 감상하고 한 구절은 부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송 지부장은 "이번 공연에 포천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우리만의 소리를 알리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포천시가 포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연무대 마련을 위한 매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포천의 얼과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 지원해주면 더욱 좋은 무대를 마련할 수 있다.

포천신문사에 바라는 사항은 포천지역에 국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소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송 지부장은 "포천에는 포천메나리와 풀피리가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며 "포천시민들은 포천에 무형문화재가 2종목이나 지정돼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공연에 많이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포천사회 지도층인사들이 국악에 관심을 갖고 공연장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를 알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를 위해 국악인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더 좋은 무대를 마련하고 시민들은 공연장에 찾아와 우리소리를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며 포천시는 포천시 무형문화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예산지원은 물론 관심과 홍보에 나서 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자라나는 2세들이 우리의 소리를 어렸을때부터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의 소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교과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을 교육하고 이끌어갈 인적자원은 준비되어 있다. 다만 우리사회가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포천시와 포천교육청의 관심으로 이같은 시스템 구축이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97

쥐똥을 섞어 도배 풀로 쓰다

리효종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윤현은 늘 검소하였다. 그가 호조판서로 있을 때였다. 그는 떨어진 돗자리와 청색 무명베 등을 모두 버리지 않은 채 창고에 쌓아놓았다.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다.

"다 떨어진 돗자리와 무명베를 어디에 쓰겠다고 모아 놓는단 말인가?"

그러나 윤현은 떨어진 돗자리를 조지서(造紙署)에 보내 다시 갈아 종이로 만들었는데 품질이 아주 뛰어났다. 또 청색 무명베는 예조에 보내 병사들의 옷고름을 만들게 했다.

그때 나라의 창고에 쌓여 있는 곡식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쌀 중 절반이 쥐똥으로 덮여 있었다. 윤현은 각 창고에 명하여 쌀에 섞여 있는 쥐똥을 모두 모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시를 비웃으며 말했다.

"도대체 쥐똥을 어디에 쓴단 말인가?"

그 무렵 명나라 사신이 곧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자 윤현은 관사 벽을 새로 도배할 때 이 쥐똥을 섞어 사용했더니 벽지가 더욱 잘 붙었다.

그는 집안의 살림살이도 꼼꼼히 챙겼다. 하루는 부엌에 가보니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귀한 땔나무를 낭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청지기를 불러 말했다.

"요즘 땔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우니 너는 기와를 만드는 관청에 가서 단단한 참나무 장작을 사오너라."

기와를 만들 때 화로에 넣는 참나무는 어떤 나무보다도 단단하였으나 불이 붙으면 화력도 좋고 오래 땔 수 있었다. 청지기가 나무를 구해오자 윤현은 녹이 슨 도끼를 내주며 말했다.

"앞으로는 이 도끼로 나무를 잘라 쓰거라."

그러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궁이에 불을 넣을 때마다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계집종은 땀을 뻘뻘 흘리며 녹슨 도끼로 나무를 잘라 써야 했으므로 나무 한 조각을 마치 금덩이처럼 아꼈다.

그의 집 밖에는 서른 이랑 정도의 채마밭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채소를 심지 않고 기장을 심었다. 채마밭에 기장을 심으니 사람들이 모두 이상히 여기며 말했다.

"채마밭에 기장을 심어 무엇 하리요?"

하지만 윤현은 그 밭을 말을 기르는 하인에게 붙여주고, 하루에 한 이랑씩 기장을 베어 말에게 먹이게 했다. 밭이 서른 이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하루에 한 이랑씩 한 달이면 서른 이랑을 베었다. 하지만 기장은 빨리 자라는 작물인지라 한 달이 지나면 맨 처음 베었던 이랑에는 다시 기장이 자라 있었다. 그리하여 말 먹이는 하인은 굳이 들에 나가 꼴을 베지 않고도 말에게 충분한 먹이를 줄 수 있었다.

윤 현(尹 鉉)

1514년(중종 9)~1578년(선조 11).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자용(子用) 또는 국간(菊磵)이다. 1531년(중종 26) 진사가 되고, 1537년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후 황해도·충청도·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호조판서를 지냈다.

시문에 능했으며, 그가 노년에 이르도록 관직에 있었던 것은 탁월한 행정수완 때문이었다. 특히 호조에서 근무할 때는 국가재정을 아끼고, 한편으로는 재정을 풍족하게 만들어 조선 건국 이래 제1인자로 칭송되었다. 명종때 청백리로 뽑혔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뮤지컬 이야기 #46

1946~1940년대 할리우드 뮤지컬의 새로운 시도

몇 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대선에서 주요 언론사들이 말썽 많았던 플로리다주의 투표지 재검표를 요구하며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대선 개표에서 판독이 불가하다고 무효 처리된 17만여표의 정밀 재검표를 공식적으로 의뢰했지만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 9.11테러가 발생하면서 돌연 발표가 연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한 신문은 "9.11테러가 발생하면서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 했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3대 미국 대통령선거의 박빙 승부는 남동부 플로리다주의 음모설과 함께 부재자 투표 용지 도난 의혹이 부각되어 언론에 톱 뉴스로 오르내렸지만 역시 흑인 유권자에 대한 투표권 박탈 의혹이 더욱 크게 쟁점화되어 아직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에 다시금 음모론이 대두되고 있는 미국의 흑인들에 대한 차별은 1960년대 이전까지 극에 달했었다. 특히 남부에서는 흑인들에게 투표권도 주지 않았다. 버스도 식당도 따로 이용했으며 흑백이 한 공간에 존재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1960년대에 인권운동이 절정에 다다르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진보적인 젊은 백인들이 흑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시작하면서 법적으로 인종차별 금지조항까지 생겼다.

하물며 영화나 뮤지컬 등 대중적인 오락물에서 1960년대 이전에 흑인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조역으로 백인들과 손을 잡는 일 조차도 타부시 되었었다. 물론 1935년에 초연된 3막짜리 재즈 오페라 〈포기와 베스(Porgy and Bess)〉가 조지 거쉬인(George Gershwin)의 대표작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역시 출연진 모두가 아프리카계 오페라 가수들로 구성되어 막을 내리는 순간까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또한 비제의 오페라에 기초한 〈카르멘 존스(Carmen Jones)〉도 1943년에 초연되었지만 대중들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1943년 뮤지컬 영화의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포기와 베스〉나 〈카르멘 존스〉처럼 오페라라는 형식이나 비제의 유명세를 빌어 지탄의 방어벽을 만든 것과는 달리 대중적인 음악을 가지고 그것도 파격적으로 흑인들만 출연한 뮤지컬 두 편이 전격 개봉된 것이다. 〈캐빈 인 더 스카이(Cabin In the Sky, 1943, MGM)〉와 〈스토미 웨더(Stormy Weather, 1943, 20th century-Fox)〉가 그 영화인데 그중 〈캐빈 인 더 스카이(Cabin In the Sky)〉는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화로 기록되고 있다.

1940년에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캐빈 인 더 스카이(Cabin in the Sky)〉는 MGM에 의해 1943년에 개봉되었다. 영화버전은 파우스트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도박빚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리틀조가 그의 영혼을 상환하기 위해 6개월이 주어진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만큼 부유해지고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부터 유죄선고를 받는다. 이 작품의 캐스트는 모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로 구성되어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영화였으며 모험적인 뮤지컬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영화가 개봉되자 특히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들만 나오는 이 영화의 상영을 거부했고 MGM 영화사는 재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비록 어떤 묘사에서는 감각적으로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영화의 대본은 지적이며 위트가 있었고 진기한 존엄성을 지닌 캐릭터들과 인종을 다루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렇지만 흑인여성이 거품목욕을 하며 노래 부르는 장면은 적어도 백인들에게는 1943년의 도덕적인 품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더욱이 유명한 재즈뮤지션인 루이 암스트롱이 단순히 목욕하며 부르는 노래도 개봉하기 직전에 편집되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루이 암스트롱의 솔로는 개봉 전에 잘려져서 많은 관객들이 아쉬워하는 진풍경도 연출되었다.

〈요란다와 도둑(Yolanda and the Thief, 1945 MGM)〉은 흑인들의 뮤지컬은 아니었지만 형식과 스타일면에서 새로운 뮤지컬이었다. 〈요란다와 도둑(Yolanda and the Thief)〉은 가상의 라틴 아메리카를 무대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징적인 스타일을 지닌 이 영화는 초현실주의적 발레가 등장하며 형식과 대부분의 장면들은 깜짝 놀랄만한 이벤트를 생각했는지 일반적인 관객의 취향은 아니었다. 마치 예술품처럼 꾸민 장면마다의 새로운 시도는 그에 걸 맞는 댓가를 치러야 했다. 박스오피스의 실패와 평단과 심지어 관객들의 혹평으로 인해 주인공이었던 루실 브레머(Lucille Bremer)와 프레드 아스테어(Fred Astaire)는 일시적이지만 은퇴를 고려할 정도로 최악의 실패를 맛본 작품이었다.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부드럽지 못한 댄스리듬과 공격적이며 파괴적인 질감을 가진 인물로 설정되었고 뒷 무대에서 주인공들과는 격리된 미묘한 색깔 속에 감춰져 있었다.

1940년대의 이러한 뮤지컬의 새로운 시도는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지성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뮤지컬 영화의 요구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흥행과 작품성의 실패로 인해 빛을 잃었다. 그렇지만 이전까지 만들어졌던 멜로적이고 전쟁행사용 뮤지컬들과는 전혀 다른 시도로 그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곧이어 명작들을 탄생하게 하는 단초를 마련해 주었다는데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예/술/칼/럼

디오니소스(Dionysos)와 바커스(Bacchus)

디오니소스와 바커스는 그리스신화와 로마신화에서의 술의 신(酒神)이다.

궂은 일이나 좋은 일이던 술은 항상 식탁에 오른다. 시간의 부록처럼 삶의 이곳저곳을 함께 다니며 일상의 독주와 합창으로 인생의 줄다리기를 같이 한다. 술자리에서 사람마다 술을 다루는 방법은 대단히 독특하다. 삶에서의 시·공간적 사람과 술과의 관계적 리듬은 덤으로 즐기는 보너스인양 싶기도 하다.

술은 소중한 기억과 추억을 풀어주는 산뜻한 자극제다. 봄비가 촉촉이 메마른 땅을 적시듯이 생기와 소란으로 사람의 마음을 가득하게 한다. 힘과 용기가 충천한다. 얼핏 생각하기에 두 가지 병이 비슷하다. 꽃병과 술병이다. 모두 맛있고 향기롭지만 독소가 있다.

물은 그릇에 붓고 술은 감성에 따른다. 물은 생산과 가꿈의 물레방아를 돌리지만 술은 엉킨 매듭을 풀기도 한다. 물은 에너지다. 사람도 에너지다. 사람의 몸 70%가 물이기에 더욱 그렇다. 예로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라 하여 산과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미래를 보장받는다고 했다.

인간의 동력은 움직임에서 발생된다. 움직일 동(動), 힘력(力)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물(신체)을 사용하는 동력 발전기다. 일하는 것이 곧 동력이다. 사랑의 물로는 전등을 켠다. 어쩌면 물과 불이 상극 같지만 항상 닿아 있는 것이다. 사람의 섭취하는 모든 음식(물)은 인간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연료다. 술은 인간 동력 발전기의 매커니즘 구조에 윤활유와 같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발전·진화해 간다. 그 관계 속에 합석한 술이 서로 간섭하며 운동하는 몫은 반드시 있다.

간혹, 술 마시기에는 학술적 술 마시기와 예술적 술잔 비우기가 있다. 학술적 술 마시기란 냉철한 우상과 이성을 도마 위에 올려 칼질을 하는 것이다. 대화자의 철학과 가치관의 도전내지는 충돌을 슬기롭게 비판하는 지성의 향연이다. 또한 예술적 술잔 비우기란 현실과 이상과의 공간 속에 냉정과 열정의 모자이크를 하며 아름다운 생각의 요리를 하는 것이다. 더러 술은 답답한 생활에 활력과 생리적 리듬을 조화롭게 하는 비타민이다. 미움과 질투의 함수에 긍정과 용서의 아름다운 관계의 동심원을 그려 가슴에 닿게 한다. 더러 예술적 사유에 있어서 정적이며 동적인 특색을 드러내는 디오니소스형이라 일컬어지는 문예사상적 벽돌을 쌓기도 한다. 이러함이 술이 내포한 순기능(順技能)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술의 순기능은 인간관계의 화친(和親)이고, 물 에너지의 충전이며 그 역기능(逆技能)은 정신적 영향 공급의 공황이며 정신물량의 부도사태다. 술은 때때로 금지된 구역에 심술의 돌을 던지기도 한다. 때로는 알콜 중독의 티켓을 뽑아 긴 여정의 개찰구를 먼저 빠져나가게도 한다. 끝내 비참한 종착역에 이르게 되면 주신(酒神)의 집은 불놀이마저 그치고 그 광장은 빗물 한 잔을 대접할 뿐이다. 가끔 술은 사람을 정신적 불구자로 만든다. 술은 향락문화의 필연적 공범자이기도 하다. 술의 오르가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긍정과 부정을 드나들며 고자질하여 쌈을 부치고 쌈을 말리는 야릇한 심술쟁이 브로커다. 그래서 술과의 논쟁만큼 흥미로운 수업은 없다. 반면에 술과의 다툼보다 무서운 독약도 없다.

물이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하듯이 술도 건전한 박자로 잘 가꿀 때 삶의 노래와 꿈이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이다.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 주간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31)

중암 김평묵(重菴 金平默)

김평묵 선생은 가산면 가산리 출생의 대학자로 화서 이항로(華西 李恒老) 선생의 수제자로 1842년 24세시 최익현, 유중교, 유인석, 유기일 등과 함께 위정척사 사상(衛正斥邪)의 실천가였으며 의병활동의 전개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 최선봉의 큰 인물이었다(화서 선생의 수제자)

서양의 거센 바람 휘몰아 오니
흰머리 귀양길에 다시 나섰소
동파로 아홉 번을 겪었지만
한번도 후회라곤 하질 않았네
벗님(友人)네여 어서 눈물을
거둬주구려

이 시는 임오군란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어 유배(流配)길에 오르자 친지, 제자들이 나와 슬픈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남긴 시이다. 선비정신이 투철하고 의연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훌륭한 어머님 황씨의 지극정성이 천재이자 문·충·의(文·忠·義)만을 위해 살다간 위해 살다간 중암을 만들었다고 한다.

운담정사(雲潭精舍) 는 님이 말년에 사시던 일동면 댁이며 거연대(居然臺)는 양주, 포천, 연천, 양평의 선비들이 매년 모여 중암 선생과 함께 시회(詩會)를 열던 곳인데 130여명의 님을 따르는 선비들이 모였다 한다.

님의 뿌리는 중종조 조광조와 함께 왕도정치를 제창하던 김식(金湜)과 효종조에 영의정을 역임한 경제학자이며 실학의 선구적 역할을 한 김육(金堉)의 후손인데 조부 김시곡(時谷)의 유훈(遺訓)인 군군, 신신, 부부(君君, 臣臣, 父父)의 도리를 다하라는 바를 종신토록 유념한 한말의 대학자였다.

1891년(고종 20년)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바람이 몹시 불고 종일토록 눈이 내려 석자(1m)나 쌓여 하늘도 민족정기를 일깨운 충신의 타계를 슬퍼한다고 이웃들은 말했다고 한다.

3개월후, 전국사림장(全國士林葬)으로 백운산 기슭 다목동에 모셔졌다. 운담영당은 님의 모습의 모신 곳이며 제당을 설치하였으며 6.25당시 소실된 것을 1999년10월 복원하였으며 매년 3월10일(음력)이 제향일이다. 운담영당 외에도 가평의 경현단과 우리 포천에는 산암단에서 제향을 지낸다.

님의 유훈으로는 후손들에게 벼슬하지 말고 백성을 위해 땀흘려 일 할 것을 권했다고 전한다. 종손으로는 김유관(金裕寬)씨가 서울 충무로에서 인쇄업으로 평생을 보냈으며 그의 아들 김종수 박사가 열역학을 전공한 도미유학도인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新春(신춘)

이 창 수
포천명유회 회원

森羅萬象待春時(삼라만상대춘시) 候鳥飛來燕舞歌(후조비래연무가)
삼라만상이 봄을 기다리는 때에 강남갔던 제비는 노래하며 날아오네

山影倒江魚躍出(산영도강어약수) 樹陰當路馬行枝(수음당로마행지)
산 그림자 거꾸로 비추니 고기는 뫼뿌리에서 뛰고 나무 그늘이 길에 비치니 말은 가지위로 가네

花信點火東西岸(화신점화동서안) 明月誰分上下池(명월수분상하지)
꽃은 동서 강언덕에 피기 시작하고 명월은 누가 나누어서 상하연못에 던졌는가

節序循環天理定(절서순환천리정) 佳辰難拒美人巵(가신난거미인치)
계절이 바뀌는 것은 하늘이 정한 섭리인데 이렇게 좋은 때에 미인과 술잔을 수작하네